

박지영



이미숙



'쎄 언니'들의 대결 돌직구에 속이 땡~

SBS '질투의 화신' 이미숙·박지영 화끈한 코믹 케미로 존재감 과시

장희빈과 장녹수가 만났으니 사람이 나도 큰 사람이 날 수밖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요부'이자 사랑에 목숨을 건 두 미녀가 붙으면 1만 볼트 이상의 고압 전류가 화면에 '짜르르' 흐른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피하기는커녕 화면 가까이 더 다가가 두 '언니'들의 대결에 몰입한다. 언니들의 장군, 평균 대결을 지켜보는 게 이렇게 재미있고 시원한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SBS TV 수목극 '질투의 화신'의 이미숙(57)과 박지영(48)이 예상하지 못했던 즐거움을 선사하며 중년 여배우의 존재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예쁜 왕언니들의 화끈한 한방 = '질투의 화신'의 코미디는 여러 사람이 고루 책임지고 있지만, 이미숙과 박지영이 보여주는 화끈한 코미디도 절대 놓쳐서는 안될 일품요리다.
'질투의 화신'은 제목처럼 등장인물들이 질투라는 감정에 몸부림치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리는데, 이성간은 물론이고, 부모자식간, 직장동료간, 죽마고우간의 질투가 고루 다뤄진다. 이미숙과 박지영은 방송사 인사동기 동료이자, 한 남자(윤다훈 분)와 잇따라 결혼한 기이한 인연으로 엮인 계성숙과 방자영을 각각 연기한다.
이들은 여고생 뺨가이를 두고 낳은 정, 기른 정을 다루는 사이이기도 하다.
드라마는 계성숙과 방자영이 차례로, 그것도 6개월 만에 바통터치를 하며 결혼했던 남자와 역시 잇따라 일찌감치 이혼했고, 그 남자가 심지어 죽은

것으로 처리해 이 두 중년의 골드미스에겐 날개(?)를 달아줬다.
미모나 실력, 재력 등 어느 하나 부족한 것 없는 이 두 언니들은 거침없고 당당하고 화끈하다.
대개 화사한 청춘들이 화면에서 뛰어놀아야 눈이 호강하는 법인데, 이 두 왕언니들이 등장하면 그와 같은 효과가 난다. 언니들은 여전히 예쁘고, 멋진데 심지어 화끈하니 더할 나위가 없다.
모성애로 호소하고 눈물짓는 장면조차 이 두 언니는 스타일이 남다르다. 딸을 위해서는 바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무릎도 꿇어버리고, 승리의 기쁨이 생기면 바로바로 잡아버린다. 이들에게 요즘 청춘들이 없는 '결정 장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들의 행보에서 커브같은 없다. 오로지 직진하는 '돌직구'만 있으니 웃자고 하는 코미디라고 해도 속이 땡 풀린다.
◇장희빈과 장녹수의 20~30년 후의 모습 = 이미숙과 박지영은 국내 사극의 인기 캐릭터이자, 미인을 상징하는 두 인물인 장희빈과 장녹수 출신이다. 방송사가 인정한 '정통 미인'인 이 둘은 또한 나란히 미인대회 출신이기도 하다.
1978년 미스 롯데 선발대회에서 인기상을 받으며 연예계에 데뷔한 이미숙은 장희빈과 장녹수를 잇따라 연기하며 화려한 20대를 보냈다. 그는 1981년 MBC '여인열전 장희빈'에서는 장희빈을 맡아 속출 역의 유인촌과 함께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1984~1985년 MBC '조선왕조 500년 설종매'에서는 장녹수를 연기했다. 당시 연산군은 임영규

였다.
1989년 미스 춘향 선발대회에서 선으로 입상하며 연예계에 데뷔한 박지영은 1995년 KBS '장녹수'의 타이틀 롤을 맡아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경쟁사인 SBS에서 대박 히트작 '모래시계'를 방송하던 때였음에도 박지영은 특유의 매력으로 연산군 역의 유동근과 함께 '장녹수'가 25% 전후의 시청률을 유지하게 만들었다.
그때 그 시절의 장희빈과 장녹수가 '질투의 화신'에서도 불에 뛰어드는 부녀처럼 사랑을 향해 돌진하니 짜릿하다.
계성숙과 방자영이 세프 김락이(이성재)을 놓고 끈 동상이몽과 벌인 육탄돌격은 중년의 욕망과 사랑을 솔직하면서도 경쾌하게 그려내며 젊은 시청층도 사로잡았다.
"우리가 나이가 맞인데..."라며 남 눈치 안보고 김락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들은 김락이 '무성육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곧바로 "내가 가져"라며 서로 양보(?)하는 모습으로 배꼽을 잡게 했다.
미모를 꾸준히 관리한 것 못지않게 연기력도 탄탄하게 쌓아올린 두 배우는 이제는 조연으로 몰려났지만, 팬셋 같은 섬세하고 강렬한 연기로 주연에 밀리지 않고 화면을 장악한다. '질투의 화신'의 특성상 과장된 상황과 연기가 이어지지만, 이미숙과 박지영은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이를 온몸으로 소화해낸다.
코미디 센스로 무장한 이 두 예쁜 언니의 색시한 매력에 가을밤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재능 기부 홈쇼핑 예능 '어서옵쇼' 5개월 만에 시청률 3.7%로 종영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어서옵쇼(SHOW)'가 방송 5개월 만에 3%대의 시청률로 퇴장했다.
지난 7일 밤 9시30분에 방송된 '어서옵쇼' 마지막회 19회는 평균 3.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부산 지역에서만 예외적으로 5.1%의 시청률을 나타냈다.
비슷한 시간대 방송된 SBS TV '정글의 법칙' 몽골편 시청률은 15.3%, MBC TV DMC페스티벌 특집 '나는 가수다-전설의 귀환' 1부 시청률은 7.3%로 집계됐다.
이날 '어서옵쇼'에서는 최민수, 솔비·장도연, 지상렬·황재근이 출연해 가족공예 등 자신의 재능을 판매했다.
지난 5월 6일부터 전파를 탄 '어서옵쇼'는 유명 인사들이 자신의 다양한 재능을 기부하고 이를 온라인 생방송으로 판매하는 포맷이었다.

그러나 MBC TV '마이 리틀 텔레비전'과 유사하다는 지적 속에서 초반부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 확보하지 못했고, 진행자 노홍철, 이서진, 김중국의 어울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어서옵쇼' 후속 프로그램은 21일부터 방송되는 음악 예능 '노래싸움-승부'다.
같은날 방송된 tvN '먹고 자고 먹고' 쿠파편 마지막회는 평균 2.4%, 최고 3.9%의 시청률로 종영했다. '먹고 자고 먹고'는 음식문화에 대한 외식사업가 백종원이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며 현지 재료로 요리를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먹고 자고 먹고' 쿠파편의 후속 프로그램은 이서진과 에릭, 윤균상의 '삼시세끼' 여촌편 시즌3로 오는 14일 방송된다. 위너 이승훈과 공승연이 동행한 '먹고 자고 먹고' 태국 리라비편은 11월 중에 방송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손연재,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출연

리듬체조 교실 15일 방영
국가대표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가 MBC TV 예능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한다.
MBC는 9일 "손연재가 출연하는 '마이 리틀 텔레비전' 녹화가 오늘 다음 팟TV에서 진행된다"면서 "녹화본은 오는 15일 TV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MBC TV 추석 특집 '아이돌 스타 육상·씨



름·풋살·양궁 선수권 대회'에서 리듬체조 부문 금메달을 획득한 우수소녀 성소가 특별 출연해 손연재로부터 리듬체조를 배운다.
이날 녹화에는 슈퍼주니어 헨리와 홍혜걸-여은더의 사 부부도 함께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쁜 날	10 좋은 아침
10	00 세계기록유산 1주년 특집 이산가족 세계의 기억으로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4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30 코리아 지오그래피 플러스	00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TV블로그 꿈지락 05 토크쇼 토크 화통 55 닥터 365
12	00 KBS 뉴스 12			00 SBS 12 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열린공간 토크 Talk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재) 05 특집다큐 2부작 (특별한 귀향) 55 별별가족	00 이웃집 찰스 (재)	10 시사토끼 이슈를 말한다(재)	55 닥터 365
2	00 제9회 전국체육대회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	00 키즈 사이언스 6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3	55 튜튼생활체조 (재)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퓌?퓌! 키즈스쿨 55 깨미탐험대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영성열반산 30 2016 영화의 바다로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타민(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특 30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20 2016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결정전 (LG : KIA)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우기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8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00 월화 특별기획 (캐리어를 끄는 여자)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꽃놀이패
11	00 KBS 뉴스라인 40 한복수교 130주년 특선 시간의 종말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2016 DMC페스티벌 라디오DJ 콘서트 1~2부	
12	35 인간극장 스페셜(재)	35 비바 K리그		35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알프스산맥 이탈리아 돌로미티)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07:30 로보카 폴리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덩동맹 유치원 1~3 08:45 부릉!부릉! 부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09:15 출동! 슈퍼핑크	09:30 이말! 스페이스 정글 09:40 부모-위대한 엄마 10:30 한국기행 (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갈치조림과 삼겹살 김치볶음)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한국에 산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13:40 출거운 수학 EBS MATH 13:50 그림을 그려요(2) 13:55 시계마을 투키투! 14:25 허풍선이 과학쇼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 래빗 15:20 아동명명 귀여워 15:35 요술 상자(2) 15:45 출동! 슈퍼핑크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부릉!부릉! 부루미즈(재) 16:45 덩동맹 유치원 1~3(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1~4 19: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20:40 다크 오늘 (재주권 명성을 되찾다) 20:50 세계테마기행 (대륙의 천하장성, 광시 1부 신이 그린 산수화, 구이안) 21:30 한국기행 (귀뚜라미 투어 1부 가을이 멈추어다) 21:50 EBS 다크 프라이빗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22:45 달라졌어요 23:35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24:10 EBS 특별기획 통찰(潮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0일(음 9월 10일 乙丑)	
子	48년생 중년에 좌우되지 말고 소신껏 판단하자. 60년생 편견 없는 발상이 성사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72년생 마음으로는 무 의미하니 여건조성부터 하고 보라. 84년생 끌려다니지 말고 주체적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2, 76	午	42년생 힘들었을 때 근력 운동이 되는 원리를 알아. 54년생 유혹에 휘말린다면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66년생 한계 선을 허용한다면 수습하기 어려워진다. 78년생 뚜렷을 열어보면 실망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4, 31
丑	49년생 중대사를 진지하게 상의하게 되리라. 61년생 하나가 여러 가지 가능으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73년생 제반 요소들이 결집돼 활성화 단계에 이른다. 85년생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94, 97	未	43년생 자승자박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만 할 것이다. 55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정밀한 분석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67년생 기준 질서를 재편하는 파격적인 것이 낫다. 79년생 처지가 많이 달라질 것이니 충분히 감안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79, 64
寅	50년생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된다면 반드시 부귀가 따르겠다. 62년생 숫대를 가진 일관된 연행이 아쉽다. 74년생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86년생 바야흐로 성공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다. 행운의 숫자 : 72, 46	申	44년생 뜻밖의 환심을 보이는 이를 경계하라. 56년생 물이 깊은 곳이라도 큰 고기가 모이는 법이다. 68년생 실현의 계기가 마련되면서 행복지수가 매우 높아진다. 80년생 오랜 인연의 끈으로 맺어질 사람을 만나리라. 행운의 숫자 : 81, 73
卯	51년생 보완하지 않고 기반이 있다면 순해로 이어질 것이다. 63년생 기대했던 바가 허망해지는 처지이니라. 75년생 추진력이 향상될 것이다. 87년생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시기에 무너져 내린다. 행운의 숫자 : 82, 06	酉	45년생 예견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57년생 복합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부합해야만 될 것이다. 69년생 기회는 한정돼 있는 법이니 선택을 잘 해야 한다. 81년생 특별한 방법이라도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2, 35
辰	40년생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52년생 겸손하다면 더 존귀한 위치에 놓인다. 64년생 즉시 보완하라. 76년생 일의 순서보다 양에 중점을 두어야 할 때가 되었다. 88년생 무리하게 행하려 한다면 하지 않으면 못 하다. 행운의 숫자 : 90, 80	戌	46년생 속고래 왔던 바를 결정하게 되는 날이로다. 58년생 학수고대 해왔던 것의 실마리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70년생 진전을 보이다가 걸림돌에 넘어진다. 82년생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43, 56
巳	41년생 곁들여야 한다. 53년생 문제점이 보인다. 65년생 걱정할 필요 없으니 마음 폭 놓고 있어도 된다. 77년생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이른다. 89년생 지나치다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 행운의 숫자 : 18, 50	亥	47년생 보완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 59년생 근본 원인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고 볼 수 있다. 71년생 의지대로 도모해도 되는 위상이로다. 83년생 지우거나 나타내거나 즉시 행동 대응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96, 70